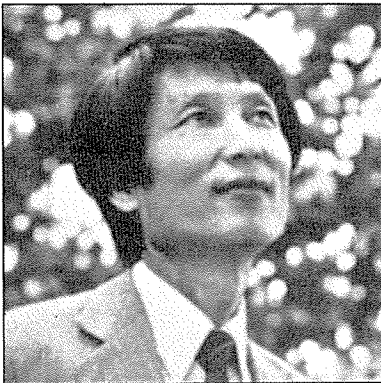


무엇이 부끄러운 일인가

朴 演 求
(수필가)



나는 얼마 전에 남쪽 지방의 어느 소도시에 다녀온 일이 있다. 백일장 심사를 위촉받고 간 것인데, 그 행사를 협찬한 D주식회사 사장인 K씨가 이튿날 그곳 자기네 공장을 둘러보지 않겠느냐고 해서 「견학」을 한 바 있다.

사장차가 정문에 당도하자 수위가 재빨리 달려와서 문을 열어준다. 출근중인 종업원들은 「반갑습니다!」하고 아침인사를 한다. 사장도 「반갑습니다!」하고 답례를 한다. 도열해 있는 나무들도 「반갑습니다!」하고 인사를 하는 것 같다. 종업원들의 얼굴들과 나무들의 표정은 한결같이 의욕에 넘쳐 보였고, 방문객의 한 사람인 나 또한 맑은 아침 공기를 마시자 기분이 상쾌해진다.

봉제공장인만큼 종업원들은 거의가 여자들이라 하는데, 조회를 하기 위해서 각자 자기 자리에 선 것을 보니娘子軍을 사열하는 느낌이 든다. 국기에 대한 경례에 이미 애국가 봉창의 순서다. 그런데, 1절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4절도 뒤따라 불렀다.

『이 기상과 이 맘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국민 대다수는 1절만 불렀던 습성으로 4절까지 자신있게 외우는 사람이 드물다.

K사장은 간단하게 훈시를 한 다음 J씨와 나를 소개한다. 그리고는 J씨에게 한말씀 해달라고 부탁을 한다.

일본 도쿄호텔에는 70이 다된 웨이트레스 할머니가 한 사람 있었다고 하는데, 처녀 때 그 호텔에 입사한 이래 한결같이 점시나르기일만 해왔다고 한다. 손자들이나 보고 있을 나이에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 J씨의 눈에는 의아스럽기도 해서 자녀들은 있느냐고 물어보았다고 한다.

그 웨이트레스 할머니는 자기 일에 대단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평생을 바쳐 일한 직장, 그 직장 덕택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오늘까지 건강한 몸으로 생활하게 되었으니, 앞으로도 건강이 허락하는 날까지 그일을 계속할 생각이라는 말을 듣고 더없이 감동을 했었다고 하는 이야기다.

참으로 적절한 예화를 들려주었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J씨의 즉석 연설을 듣고는, 말을 잘 한다는 것도 「기술」임을 새삼 깨닫게 된 셈이다. J씨는 이 고장의 교육장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그가 말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직책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두 사람은 K사장의 안내로 공장 내부를 돌아 보았다. 자기가 맡고 있는 일에만 열심인 여공들. 그 모습들이 하나같이 아름답게 보였다. 그 아름다움은 곧 보람과 긍지를 갖는 사람들에게서만 발견할 수 있는 아름다움이 아닌가 한다.

그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제품은 주로 와이셔츠와 블라우스인데, 미국·캐나다·일본 등지로 수출을 해서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들 산업 역군이 바로 애국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와이셔츠 한장 만드는데 무려 여든 다섯번의 손질을 거쳐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도 나 자신을 돌아켜보지 않을 수 없었다. 사실 우리들은 너무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 같다. 매일 주식으로 먹고 있는 쌀이 누구의 어떤 수고와 땀으로 얻어진 것이며, 출근할 때 입고 나가는 와이셔츠가 어느 정도의 수고와 정성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인가를 모르고 살고 있다.

나는 조금 전 조희 때 그들이 제창한 애국가의 4절이 갖는 뜻을 잠시 음미해 본다. 나라 사랑이란 곧 자기가 맡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 말고 다른 무엇이 있다는 말인가.

오후 5시면 하기식의 차임벨이 울리면서 애국가 봉창을 듣는다. 길을 가다가도 멈추고 그 애국가를 따라 부르면서, 그날 하루도 한점 부끄러움없이 자기 일에 성실했는가를 반성해보는 것이다.

여공들의 일은 분명 하나의 기능에 속한다. 그녀들이 하는 일을 나는 할수가 없다. 반대로 내가 하는 일을 그녀들은 할수가 없다. 그러므로 내가 하고 있는 일도 하나의 기능이라고 볼 수 있다.

J씨가 연설을 하고 난 다음 K사장이 나에게도 한 말씀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것이다.

「쇠똥구리는 스스로 쇠똥굴리기를 즐겨하여 검은 용의 如意珠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검은 용도 여의주를 가졌다하여 스스로 뽐내어 쇠똥구리가 쇠똥굴리는 것을 비웃어서는 안된다.」(이덕무(李德懋) / 「단장(斷章)」에서)

그런데, 나는 말을 잘 못한다. K사장은 그 사정을 잘 알고 있기에 시키지 않았던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 대신 나는 글을 쓰는 「기술」이 있는 만큼, 그때 듣고 본 이야기를 수필로 쓰고 있는 중인데, 도무지 잘 써지지 않아서 애를 먹고 있다. 거뭇 破紙를 내고 있는 것을 K사장이 보았다면 불같은 성질에 한마디 핀잔을 주었을 것이 분명하다.

「우리 공장 여공들 중에서 당신처럼 일감을 자주 버려놓는 실수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놔두지 않았을 것이다.」

경영자로서의 K사장도 기능인의 한 사람이라고 본다. 우리들은 제각기 다른 기능을 가지고 이 사회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 기능들을 오케스트라의 한 멤버로서, 어느 것이 어느 것만 못하다는 법은 없고, 다만 숙련되지 못한 기능, 성실치 못한 기능만을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다.